

家族關係에 대한 價値意識 및 結婚滿足도에 관한 研究

서울과 안동지역의 主婦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Family Value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Housewives

— Focused on the Seoul and Andong Area —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천공업전문대학 가정학과

교수 : 徐炳淑

강사 : 金潤

Department of Household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Han Yang University

Buchun Junior College of Technology,

Prof. : Byung Sook Seo

College, of Home Economics

Lecturer : Youn Kim

차 례

I. 序論	4. 資料處理
II. 理論的 背景	5. 研究의 制限點
1. 關聯研究의 高찰	IV. 結果 및 解析
2. 研究問題設定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III. 研究方法 및 節次	2. 家族關係에 대한 價値意識
1. 調查道具의 作成	3. 結婚滿足度
2. 調查對象 및 調查對象地域	V. 結論
3. 調查節次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mily values and the factors of satisfying family life. Throughout the study the changes of family values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Whereas the family values of people living in urban community were modernized to a great extent— in position of wife, role of husband and wife, preference between son and daughter, view on filial piety—the family values of people living in rural community were remained its traditional form. For both areas

modernization of family values was found in support of old parent.

2) Both Seoul and Andong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on family values according to subjects' education and age. In Seoul, the socio-economic level was influential factor in determining subjects' family values.

3) Marital satisfaction was found higher among people living in rural community than in people living in urban community.

Since its very important not only to the individual but also to the society for a human being to be content in his surrounding, the reestablishment of the housewives family values should be followed so that other family members may approach the modernized family values.

緒 論

19세기 말부터 싹트기 시작한 한국의 근대화과정은 급격히 진행되었고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이 뒤따르게 되었으며 우리의 전통사회제도에 대한 가치 의식도 변화되었다.

가족은 사회속에서 작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체제나 문화의 초점이 바뀔때 따라 가족문화도 변형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결혼만족도는 어떠한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 봉양, 부인의 지위, 부부간 역할, 아들과 딸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효도관의 5개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지역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5개 각 영역에서 연령, 학력, 종교, 가족형태, 사회경제적 지위를 독립변인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영역별 가치의식의 변화상태를 조사하고 또한 가정생활의 핵심인 결혼만족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는가를 전통성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일부 전통성이 강한 지역과 비교적 근대성이 강한 지역을 비교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두 지역간 가치의식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또한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理 論 的 背 景

1) 관련연구의 고찰

가치의식이란 한 개인 또는 집단이 행동방향과 목표

를 자신이 바람직한 것으로 선택하는 느낌 혹은 생각이라 할 수 있고, 결혼만족이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주관적인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 봉양, 부인의 지위, 부부간 역할, 아들과 딸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효도관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부모봉양에 대해 이¹⁾는 부모와의 동거경향이 점차 감소하고, 노후봉양의 책임감이 희박해 진다는 사실은 아들로서의 전통적 역할이 변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농촌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장남과의 동거 희망경향이 높아진다고 했다²⁾. 즉 장남 책임의 노부모 봉양이 점차 부모 스스로 노후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도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지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으나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변동과 고등교육으로 인해, 또한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로 부터 평등주의로, 확대가족으로 부터 핵가족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족집단내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많은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³⁾. 이는 부인의 지위가 근대화의 추세에 따라 급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부부간의 역할에 대하여 김⁴⁾은 도시화 및 여성의 취업인구 증가등으로 가족내의 부부간 역할 분화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는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옥⁵⁾은 사회의 외형적인 변화와는 달리 남녀간의 역할은 분업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영향 요인은 연령이라 밝혔

다. 즉 사회적인 변동은 가족구조, 가족기능의 변화를 초래했으나 부부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 분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역할 구분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들과 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과 이⁶⁾는 우리나라와 같은 家父長中心의 직계가족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양육에 차이를 두었다고 했으며, 아들 특히 장남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차등⁷⁾에 의하면 남아존중태도와 확대가족과는 正的相關이 있고, 교육, 경제수준 및 도시 거주와는 負的相關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가 잔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효도관에 대해 살펴보면 전통적인 孝의 본질은 부모에 대하여 자식이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나 도시화 및 근대화와 더불어 점차 개인주의적이며 합리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도시가 농촌보다 더 급격히 변화되었다⁸⁾.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이란 부부를 비롯한 가족간의 애정은 물론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및 자녀의 출산과 순조로운 성장 및 사회적인 성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혼에서 추구될 수 있는 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 만족도 측정은 이루어져야 한다⁹⁾.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정도, 생활정도, 가족형태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정도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또한 핵가족 형태인 경우에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나타났다¹⁰⁾.

2) 연구문제설정

이상에서 고찰한 관련연구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 (1)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은 지역간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결혼만족도는 지역간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주부의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研究方法 및 節次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첫째,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을 알아 보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를 근거로 예비검사를 걸쳐 반분법에 의한 신뢰도 검증은 한 김¹¹⁾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둘째, 주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L.M. Terman의 행복도 측정용 기초로 한 우도¹²⁾의 행복도측정과 선행연구¹³⁾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대상지역

지역별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이 101명, 안동지역이 96명, 총 197명의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핵가족에서는 부인이, 직계가족에서는 子婦에 대하여 행해졌다.

조사대상 지역은 가장 근대화된 지역과 전통적인 지역을 임의로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근대화된 지역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지역을 택하였고 전통적 지역으로는 비교적 전통적 가치의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북 안동지역을 택하여 실시하였다.

3) 조사절차

본 연구에 사용되는 설문지는 각 문항의 타당성, 난이성, 객관성과 설문지의 언어구성 및 응답형식 그리고 문항배열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사전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철저히 교육시킨 면접요원에 의하여 면접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안동지역에서는 1982년 9월 13일~17일로 하회동(안동군 풍천면), 소산동(안동군 풍산읍), 임동(안동군 임동면), 안동 시내(안동시 광석동, 용산동), 송천(안동군 임하면)에서 실시하였고, 서울에서는 1982년 9월 24일~28일까지 응봉 시영아파트, 암사 서민아파트, 청담동 A.I.D. 아파트, 잠실 주공 3단지 아파트, 신반포 한양아파트에서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가치의식 측정과 만족도 측정

을 위해 최하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가치의식은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만족도는 2개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F검증 하였다.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은 1점이 가장 근대적 가치의식이고 5점이 가장 전통적 가치의식이며, 2.5점~3.5점 사이의 점수는 중립적 가치의식이라 규정했다. 결혼만족도는 1점에서 5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큰 것으로 정하였다.

자료의 통계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KAIST Computer Center에서 처리하였다.

5) 연구의 制限點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하나 경상북도 안동지역과 서울지역의 주부만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2) 표집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본연구는 문헌고찰 및 설문지에 의한 응답결과에만 의존하였다.

(4) 조사지를 지역별로 표집하여 경제수준별, 학력별 사례수가 불균형하게 표집되었다.

結果 및 解析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1) 주부의 연령 :

서울은 30~39세가 44.6%(45명), 20~29세가 29.7%(30명), 40~49세가 18.8%(19명), 50세 이상이 6.9%(7명)의 순서로 분포를 보였고, 안동은 20~29세가 37.5%(36명), 30~39세가 34.4%(33명), 40~49세가 20.8%(20명), 50세 이상은 7.3%(7명)의 분포를

보였다.

(2) 주부의 종교 :

서울은 기독교, 천주교 집단이 37.6%(38명), 불교가 26.7%(27명)이며 무교가 33.7%(34명)로 나타났고 안동은 기독교, 천주교 집단이 14.6%(14명), 불교가 52.1%(50명), 무교가 31.3%(30명)로 나타났다.

(3) 주부의 학력 :

서울은 고졸 43.6%(44명), 전문대·대졸이상 26.7%(27명), 중졸 16.8%(17명), 국졸 11.9%(12명), 무학 1.0%(1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안동은 국졸 33.3%(32명), 중졸 32.3%(31명), 고졸 29.2%(28명), 무학 4.2%(4명), 전문대·대졸이상 1.0%(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가족형태 :

서울은 핵가족 형태가 80.2%(81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확대가족 형태는 19.8%(20명)이나, 안동은 핵가족 형태가 53.1%(51명), 확대가족 형태는 약 45%(43명)이다.

(5) 사회경제적 地位* :

서울은 上이 36.4%(36명), 中이 47.0%(49명), 下가 15.4%(16명)이며, 안동은 上이 4.8%(5명), 中이 33.6%(35명), 下가 51.8%(54명)로 지역간 차가 심하다.

2)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를 각 영역별로 두지역간 차와 경향, 그리고 각 지역에서 유의한 차를 보여준 요인들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해석을 하였다.

(1) 노부모봉양

① 노후문제 해결

두 지역 모두 근대적 가치의식을 지향하고 있으나 서울(M=1.89)이 안동(M=2.16)보다 더 근대적 가치

* 선행연구(고용복: 도시인의 사회적 태도 연구, 사회학 논총 1집, 1964. 이상백, 김채운: 한국사회계층연구 민조사, 1966, pp. 128-131. 김영모: 서울시의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을유문화사, 1969, pp. 603-618)를 기초로 하여 남편의 직업, 가족원의 총수입, 남편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했다.

1) 직업: 무직 0점, 비숙련직 1점, 판매·숙련직 2점, 사무직 3점, 관리직 4점, 전문직 5점

2) 교육수준: 무학 0점, 국졸 2점, 중졸 3점, 고졸 4점, 대졸이상 5점

3) 총수입: 20만원이하 1점, 21-30만원 2점, 31-40만원 3점, 41-50만원 4점, 50만원이상 5점

이상의 점수를 합하여 두지역을 하나로 묶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12-14점에 해당하는 20.5%를 上, 9-11점에 해당하는 42.5%를 中, 3-8점에 해당하는 37.5%를 下로 한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의식을 보였다($F=4.63, df=1/193, p<.05$). 특히 안동지역에서 “노후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로 나타난 결과는 10년전 연구결과¹⁴⁾ 보다 많이 변화된 것으로, 이는 전통성이 강한 안동에서 노후문제 해결에 대한 가치가 근대적 가치의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유의한 변인은 표 1과 같다.

서울은 연령이 낮을수록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보이고, 안동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였다(서울 $F=2.78, df=3/97, p<.05$, 안동 $F=3.99, df=3/90, p<.01$). 학력별로 보면 두 지역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근대적 가치의식을 지향하였다(서울 $F=4.13, df=2/98, p<.05$, 안동 $F=4.52, df=2/91, p<.01$). 종교별로는 서울에서는 노후문제 해결에 대한 가치의식에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안동에서는 기독교, 무교, 불교 순으로 근대적 가치의식을 보였다($F=3.00, df=2/89, p<.05$). 이는 부모 노후는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유교적 효의 개념이 불교집단에 가장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남분가

두 지역 모두 근대적 가치의식을 지향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두 지역 모두 장남의 분

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도시는 별거, 농촌은 동거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던 선행연구¹⁵⁾와 비교해 볼 때 가속적으로 일어난 사회적인 변화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근대적 가치의식으로 변화하여 장남분가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유의한 변인은 표 2와 같이 안동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고 서울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F=3.55, df=3/97, p<.05$).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대적 가치의식을 보였으며($F=17.00, df=2/98, p<.001$). 사회·경제적 지위별로는 하, 중, 상의 순으로 전통적 가치의식을 가졌다($F=3.13, df=2/98, p<.05$). 이는 생활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립적 경향이 많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즉 노부모봉양에 대한 가치의식은 친자중심의 전통적 가치의식에서 부부중심의 근대적 가치의식으로 도시, 농촌 모두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인의 지위

① 부인의 의견주장

서울(2.16)에서는 부인의 의견주장을 찬성하는 근대적 가치의식을 보였고, 안동(2.79)은 중립적 가치의

Table 1.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education and religion in aged-pleblemsolution <연령>

		20-29 X(N)	30-39 X(N)	40-49 X(N)	50이상 X(N)	F
서울	서울	1.60(30)	1.93(45)	2.16(19)	2.14(7)	2.78*
	안동	3.03(36)	2.00(31)	2.25(20)	3.29(7)	3.99**
<학 령>						
		국졸 X(N)	중졸 X(N)	고졸이상 X(N)	F	
서울	서울	2.31(13)	2.18(17)	1.76(71)	4.13*	
	안동	2.53(36)	2.00(29)	1.86(29)	4.52**	
<종 교>						
		기독교·천주교 X(N)	불교 X(N)	무교 X(N)	F	
서울	서울	1.89(38)	2.04(27)	1.79(34)	0.79	
	안동	1.58(12)	2.34(50)	2.10(30)	3.00*	

(X=평균값, N= 사례수) * P<.05 ** P<.01

Table 2.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edu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about the eldest son of branch family

〈연 령〉		20-29 X(N)	30-39 X(N)	40-49 X(N)	50이상 X(N)	F
서 울		1.77(30)	1.93(45)	2.26(19)	2.71(7)	3.55*
안 동		1.92(36)	2.13(31)	1.75(20)	2.00(7)	0.99

〈학 력〉		국졸이하 X(N)	중졸 X(N)	고졸이상 X(N)	F
서 울		3.08(13)	1.94(17)	1.82(71)	17.00***
안 동		2.10(36)	1.72(29)	2.00(29)	2.04

〈사회경제적 지위〉		하 X(N)	중 X(N)	상 X(N)	F
서 울		2.44(16)	1.98(49)	1.83(36)	3.13*
안 동		1.89(54)	2.14(34)	1.40(5)	2.50

* P < .05 *** P < .001

Table 3.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edu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about the assertion of wiver opinion

〈연 령〉		20-29 X(N)	30-39 X(N)	40-49 X(N)	50이상 X(N)	F
서 울		1.93(30)	2.16(45)	2.21(19)	3.00(7)	3.99**
안 동		2.56(36)	2.77(31)	3.15(20)	3.00(7)	1.81

〈학 력〉		국졸이하 X(N)	중졸 X(N)	고졸이상 X(N)	F
서 울		3.00(13)	2.24(17)	1.99(71)	11.65***
안 동		3.22(36)	2.66(29)	2.38(29)	7.51***

〈사회경제적 지위〉		하 X(N)	중 X(N)	상 X(N)	F
서 울		2.63(16)	2.14(49)	1.97(36)	4.25*
안 동		2.89(54)	3.71(34)	2.20(5)	1.35

* P < .05 ** P < .01 *** P < .001

식을 보였다 ($F=25.59, df=1/193, p<.001$). 이는 두 지역 모두에서 예측적 지위를 보여준 선행연구¹⁶⁾와 비교할 때 그 동안 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여성의 지위가 가정내에서도 현저히 향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유의한 변인은 표 3과 같다.

두 지역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의식을 지향하며 (서울 $F=11.65, df=2/98, p<.001$, 안동 $F=7.51, df=2/91, p<.001$). 서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 가치의식을 보였다 ($F=3.99, df=3/97, p<.01$).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근대적 가치의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F=4.25, df=2/98, p<.05$).

② 가정에 대한 특별대우

두 지역간의 차는 매우 크다 ($F=18.26, df=1/193, p<.001$). 서울 (3.60), 안동 (4.06) 모두 전통적 가치의식, 즉 “가장은 특별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로 나타났고 안동이 서울보다 더 전통적 가치의식을 보였으며 근대화된 도시에서도 부부간은 아직 획적인 평등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지역별로 유의한 변인은 표 4와 같이 서울에서는

고졸이상, 국졸이하, 중졸의 순으로 근대적 가치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F=4.39, df=2/98, p<.01$). 안동에서는 종교에 따라 무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전통적 가치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F=3.16, df=2/91, p<.05$).

즉 부인의 지위가 안동에서는 가정을 위하여 예측적 지위를 감수하는 전통적 가치의식이 잔존해 있는 것으로, 서울에서는 주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는 근대적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부부가 평등한 지위에서 생활을 영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간의 역할

① 남편이 부역일 돕는 것

서울 (2.51)과 안동 (3.04)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F=10.73, df=1/193, p<.001$), 서울은 부부의 역할 분화가 뚜렷하지 않고 단지 기능상만의 역할 부담인 근대적 가치의식을 나타내나, 안동은 중립적 가치의식을 나타낸다.

각 지역별로 유의한 변인은 표 5와 같다. 안동은 독립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고 서울은

Table 4.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education, religion and socio-economic status about the respect of patriarch

〈학 력〉		국졸이하 X(N)	중 졸 X(N)	고졸이상 X(N)	F
서 울		3.75 (13)	4.06 (16)	3.46 (71)	4.39 **
안 동		4.06 (36)	3.97 (27)	4.17 (29)	0.60
〈종 교〉		기독교·천주교 X(N)	불교 X(N)	무교 X(N)	F
서 울		3.61 (38)	3.78 (27)	3.47 (34)	1.13
안 동		4.25 (12)	4.18 (56)	3.77 (30)	3.86 *
〈사회경제적 지위〉		하 X(N)	중 X(N)	상 X(N)	F
서 울		3.88 (16)	3.52 (49)	3.58 (36)	1.22
안 동		3.98 (54)	4.09 (34)	4.80 (5)	3.16 *

* P < .05 ** P < .01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의식이 높게 나타났다($F = 6.99, df = 2/98, P < .01$). 사회 경제적 지위별로는 상층과 중층은 거의 비슷한 중립적 가치의식을 보였고 하층에서는 전통적 가치의식을 보여 지위가 낮을수록 전통적이었다 ($F = 6.28, df = 2/98, P < .01$).

② 수입관리 문제

수입관리 문제에 있어서 서울 (1.99)은 근대적 가치의식을, 안동 (2.53)은 중립적 가치의식을 보였다 ($F = 15.29, df = 1/193, p < .001$).

지역별로 유의한 변인은 표 6과 같이 종교에 따라 안동에서는 불교, 무교, 기독교 순으로 전통적 가치의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F = 3.92, df = 2/89, p < .05$).

부연하면 서울은 부부간의 역할구조가 핵가족형태에서 보이는 우애와 협동을 기초로 하는 민주적 역할 관계를 보다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안동은 경제분업에 적응하기 위한 역할변화는 이루어졌으나 부부간의 지위에 따른 역할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아들과 딸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① 남아선호

서울 (1.88)은 근대적 가치의식, 안동 (2.85)은 중립적 가치의식을 보이며, 지역간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F = 4.21, df = 1/193, p < .001$).

각 지역별로 유의한 변인은 표 7과 같다.

서울은 男兒選好에 대해 학력이 높을수록 근대적 가치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F = 5.45, df = 2/98, p < .01$). 안동에서도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F = 5.12, df = 2/91, p < .01$), 서울에 비해 전통적 가치의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동에서는 연령에 따라 40대, 50대, 20대 순으로 전통적 가치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F = 8.02, df = 3/90, p < .001$). 서울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근대적 가치의식을 나타냈으나 ($F = 5.60, df = 2/98, p < .01$). 안동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안동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보수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② 딸의 사회활동

Table 5.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edu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about husband of assistance in household affairs

<학 력>

		국졸이하 X(N)	중 졸 X(N)	고졸이상 X(N)	F
서	울	3.15 (13)	3.00 (17)	2.27 (71)	6.99 **
안	동	3.17 (36)	3.14 (29)	2.79 (29)	0.85

<사회경제적 지위>

		하 X(N)	중 X(N)	상 X(N)	F
서	울	3.31 (16)	2.35 (49)	2.36 (36)	6.28 **
안	동	3.04 (54)	3.03 (34)	3.20 (5)	0.04

** P < .01

Table 6.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religion about income management

<종 교>

		기독교·천주교 X(N)	불교 X(N)	무교 X(N)	F
서	울	1.74 (38)	2.00 (27)	2.18 (34)	2.90
안	동	1.75 (12)	2.72 (50)	2.57 (30)	3.92 *

* P < .05

두 지역 모두 근대적 가치의식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이는 딸의 활동을 전통적 여성의 활동 영역인 '집안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들과 같이 딸에게도 사회활동을 허용함을 뜻할 수 있겠다.

각 지역별로 유의한 변인은 표 8 과 같이 서울에서는 연령에 따라 연령이 낮을수록 근대적 가치의식을 보였다 ($F=2.72, df=3/98, p<.05$).

즉 아들과 딸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두 지역 모두 아들과 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5) 효도관

① 제사형식

서울 (2.48)은 근대적 가치의식, 안동 (3.42)은 중립적 가치의식을 보였다 ($F=36.39, df=1/193, p<$

Table 7.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edu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about economic respect of boys

〈연 령〉		20-29 X(N)	30-39 X(N)	40-49 X(N)	50이상 X(N)	F
서 울		1.63 (30)	1.91 (45)	2.05 (19)	2.29 (7)	1.84
안 동		2.22 (36)	2.94 (31)	3.75 (20)	3.14 (7)	8.02***

〈학 력〉		국졸이하 X(N)	중 졸 X(N)	고졸이상 X(N)	F
서 울		2.38 (13)	2.18 (17)	1.72 (71)	5.45**
안 동		2.31 (36)	2.79 (29)	2.34 (29)	5.12**

〈사회경제적 지위〉		하 X(N)	중 X(N)	상 X(N)	F
서 울		2.38 (16)	1.94 (49)	1.58 (36)	5.60**
안 동		2.96 (54)	2.71 (34)	2.60 (5)	0.51

** $P<.01$ *** $P<.001$

Table 8.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 on daughters social activities

〈연 령〉		20-29 X(N)	30-39 X(N)	40-49 X(N)	50이상 X(N)	F
서 울		1.63 (30)	1.84 (45)	1.84 (19)	2.29 (7)	2.72*
안 동		1.83 (36)	1.84 (31)	1.90 (20)	2.14 (7)	0.93

〈학 력〉		국졸이하 X(N)	중 졸 X(N)	고졸이상 X(N)	F
서 울		2.15 (13)	1.82 (17)	1.75 (71)	2.83
안 동		1.97 (36)	1.93 (29)	1.69 (29)	3.41*

$P<.05$

.001).

지역별로 유의한 변인은 표 9와 같다.

연령에 따라서 안동에서는 40대, 50대, 20대, 30대 순으로 전통적 가치의식을 가지며 ($F=6.04, df=3/90, p<.001$). 종교에 따라서 두 지역 모두 기독교, 무교, 불교 순으로 근대적 가치의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서울 $F=7.47, df=2/96, p<.001$, 안동 $F=4.19, df=2/89, p<.05$).

②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

서울 (2.80) 안동 (3.36) 모두 중립적 가치의식을 보이나 안동이 서울보다 비교적 전통적 가치의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F=16.94, df=1/193, p<.001$).

각 지역별로 유의한 변인은 표 10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만 서울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F=4.91, df=2/98, p<.01$). 즉 下, 上, 中의 순으로 근대적 가치의식을 지향한다.

효도관에 있어 서울이 안동보다 비교적 근대적 가치의식을 지향하고 있어 서울은 個人主義的 合理主義的 孝의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 안동은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 생활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가족관계만족도와 결혼만족도로 나누어 각 영역의 합을 지역간 차와 독립변인 별로 분석한

Table 9.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and religion about the ritual
<연 령>

		20-29 X(N)	30-39 X(N)	40-49 X(N)	50이상 X(N)	F
서	울	2.13 (30)	2.60 (45)	2.47 (19)	3.14(7)	2.28
안	동	3.22(36)	3.03(31)	4.20(20)	3.86(7)	6.04***

<<종 교>

		기독교·천주교 X(N)	불 교 X(N)	무 교 X(N)	F
서	울	2.18 (38)	3.11 (27)	2.32(34)	7.47***
안	동	2.92(12)	3.70(50)	3.10(30)	4.19*

* $p<.05$ *** $P<.001$

Table 10.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about son of attitude in parents
<사회경제적 지위>

		하 X(N)	중 X(N)	상 X(N)	F
서	울	3.51 (16)	2.65 (49)	2.69 (36)	4.91**
안	동	3.40(54)	3.23(34)	3.80 (5)	1.10

** $P<.01$

Table 11. Percentile of satisfying family relation according to age
<연 령>

		20-29 X(N)	30-39 X(N)	40-49 X(N)	50이상 X(N)	F
서	울	18.48 (21)	19.51 (39)	20.00 (14)	19.17 (6)	1.06
안	동	20.86 (29)	20.80 (30)	22.00 (20)	23.57 (7)	2.92*

* $P<.05$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1)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는 안동(S=21.33)이 서울(S=19.30)보다 크게 나타났다(F=23.60, df=1/164, P<.001)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의 주부들보다 비교적 전통적 가치의식을 많이 가진 안동지역의 주부들이 가족관계 즉 夫婦關係, 姑婦關係, 親子關係 등에 있어 순종적이고 의존적이어서 주부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갈등이 적어 가족관계만족도가 서울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각 지역에서 유의한 차를 보여준 변인은 표 11과 같이 안동에서는 연령에 따라 연령이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2.92, df=3/82, P<.05)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媳家와 적응이 잘 되고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전통적 가치의식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형태에 따라 가족관계만족도가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핵가족 형태는 형태만 대가족과 다를 뿐, 의식면에서는 여전히 본가와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2) 결혼만족도

안동(S=12.14)이 서울(S=11.91)보다 비교적 만족도가 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각 지역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는 변인은 표 12와 같이 안동에서는 연령에 따라 50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3.43, df=3/89, P<.05) 이러한 경향은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기간과 중년기의 심리적,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문제와 관계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지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점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28, df=2/90, P<.01).

한편 서울에서는 종교에 따라 기독교, 불교, 무교의 순으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었는데(F=3.97, df=2/96, P<.05), 이는 종교를 가진 집단에 종교를 갖지 않은 집단보다 비교적 결혼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結 論

본 연구는 주부의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변용

Table 12. Percentile of satisfying marriage according to age, religion and socioeconomic status
<연 령>

		20-29 X(N)	30-39 X(N)	40-49 X(N)	50이상 X(N)	F
서	울	11.87(30)	11.98(40)	11.26(19)	13.43(7)	2.14
안	동	12.75(36)	11.70(35)	11.25(20)	13.43(7)	3.43*

<종 교>

		기독교·천주교 X(N)	불 교 X(N)	무 교 X(N)	F
서	울	12.39(38)	12.22(27)	11.18(34)	3.97*
안	동	12.73(11)	11.76(50)	12.60(30)	1.67

<사회경제적 지위>

		하 X(N)	중 X(N)	상 X(N)	F
서	울	11.38(16)	11.76(49)	12.36(36)	1.69
안	동	11.50(54)	12.88(34)	14.00(5)	6.28**

*P <.05 ** P <.01

상태와, 결혼만족도를 조사하여 바람직한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을 파악하고 가정생활의 만족요인을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이 4개 영역 즉 부인의 지위, 부부간 역할, 아들과 딸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효도관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경향이 도시에서는 근대적 가치의식으로 변화되었으나 농촌에서는 전통적 가치의식 혹은 중립적 가치의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근대적 가치의식으로 변화된 영역은 노부모봉양 영역이고, 기타 영역은 두 지역간 가치의식의 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두 지역 모두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과 학력으로 나타났고 서울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였다.

3) 결혼만족도는 도시보다 농촌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도시가정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하였다는 많은 연구들과도 일치하는데 비해, 농촌에서는 노후문제를 부모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근대적 가치의식을 보였고 기타 영역에서도 아직도 전통적 사고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에 대해서는 전통적 가치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주부들이 농촌의 주부들보다 생활문화, 환경의 영향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이 근대화되었으나 이에 상응할 만한 주변문화가 근대적 가치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농촌 주부들도 점차 근대적 가치의식으로 전환되리라 추측해 볼 때 전통성이 강한 지역적인 문화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갈등상태가 야기되리라 추측된다.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영향하는 변인이 연령과 학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교육수준이 균등하게 높아지고 세대가 점차 다음 代로 내려감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의식은 점차 소멸되어 갈 것으로 추측된다.

가치의식은 사회문화적 배경 및 그 구성원들과 함께 변용될 때에는 갈등과 혼돈이 일어나지 않겠으나 어느 일부분만의 변용은 가치관의 혼돈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주부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재정

립 및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근대적 가치의식에 접근하도록 하는 사회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효재 : 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1집, 1960, p 47.
- 2) 이천세 : 농촌지역 주민의 가치관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p 70.
- 3) 김옥열 · 김태희 · 한완성 : 전문직 여성의 직업 및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제 12집, 1973, p 33.
- 4) 김정옥 :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부산여대 논문집 제8집, 1980, p 287.
- 5) 옥선화 :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분석. 성심여대 논문집 11, 1980, pp 88-90.
- 6) 鄭鈴淑 · 李善子 :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80, p 25.
- 7) 차재호 · 정범모 · 이성진 : 한국의 남아존중사상 - 사회 · 문화 · 심리학적 분석.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5, pp 164-165.
- 8) 이천세 : 전제서, 1973, p 70.
- 9) Burr R., Wesley :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1970, p 29.
- 10) 유영주 :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간의만족도 연구. 가정대학논문집 제 4권 서울대학교, 1979, pp 9-10.
- 11) 김명자 :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 변용에 관한 연구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관동대학 논문집 8, 1980.
- 12) 午島義友 : 家族關係の心理. 東京 金子書房 1974, P 245-248 을 한상순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과 가족의 행복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제 2집, 1978에서 재인용.
- 13) 이효재 : 1960, 전제서.
- 14) 이천세 : 1973, 전제서, pp 72-74.
- 15) 최재석 : 한국인의 가족의식의 변용. 진단학보 28, 1965, p 147.
- 16) 상계서, p 146.